

남부대-라마다광주호텔, 수영체육진흥센터 발전 MOU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와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대표이사 김대원)은 11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층 중연회장에서 한국수영체육진흥센터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대 제공>

방탄소년단 팬, 제이홉 생일기념 광주 복구에 마스크 기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정호석)의 팬들이 11일 문인 광주 북구청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팬들은 이날 제이홉의 생일을 기념해 마스크를 기부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교육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확대 협약



전남교육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와 손을 잡고 학교민주 시민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정보 공유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공동개발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반 사업 협력 운영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스트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 '가현학술상'



지스트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이 최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 한국CDE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가현학술상'을 수상했다. 가현학술상은 최근CDE학회 논문집에 1년간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지스트 제공>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다른 눈 떴으면 해요”

시각장애 딥고 조선대 박사학위 취득 서미화 유일장애인지원센터 소장

중 2때 망막색소변성증 발병...차별·편견에 학업·취업 좌절 '장애인은 보호대상 아닌 사회인' 인식 개선 위해 인권운동

빛과 어둠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 장애를 가진 서미화(여·54)씨. 장애에 굴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한 그가 오는 25일 열리는 조선대 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서씨는 논문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지도교수 김용섭, 공동지도교수 박희서)을 완성했다.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파견되는 '장애인 도우미'에게 장애인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한 논문이다.

서씨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망막색소변성증이 발병한 이후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졌다. 어렵사리 공부한 끝에 학력고사를 치렀으나, 답안을 OMR 카드에 기록하게 해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지만, '왜 우리 대학에 왔냐'는 모욕적인 말

을 들으며 공부해야 했다. 학업 의지를 잃고 방황하던 그는 30대에 교통사고로 6개월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이 때 '시력 외 다른 신체 기능이 모두 건강했었다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그는 "불평만 하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36세에 목포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다"고 돌아봤다.

이후로도 사회복지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으나 공부할 학교를 찾지조차 쉽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을 지도해 본 교수가 없었다'며 여러 대학에서 입학의 거부당했던 것이다. 서씨는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는 장애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다"고 돌아봤다. 서씨는 유일하게 원서를 쓰도록 권유한 조선대를 통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조선대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 중 동의를 받아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선발해 서씨를 돕기도 했다.

"터미널에 마중나와 준다면,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며 설명해주는 식이었어

요. 비장애인학생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차별·배제 당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서씨는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에도 적극 나서 왔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공동대표 활동이 대표적이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안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 제·개정 청원 등 활동을 했다.

"2005년 목포대를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고 취업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부각돼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동료, 전문가로 나를 받아주질 않는 사회를 바꾸고자 인권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장애인을 원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그 곳을 만들자"는 의지로 번졌다. 서씨는 2005년 전남지역 최초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개소. 전 직원 중 5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장애인 취업'을 이끌었다. 또 시민운동 단체 추천을 받아 2010년 장애인 직능대표로 목포시 제9대 시의원으로서 당선, 전남지역 최초 장애인여성 의원이 되기도 했다.

현재 유일장애인지원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인지원센터 공동대표 등



으로 활동 중인 서씨는 앞으로 차별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자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경험과 박사 학위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개발과 제언, 법률 제·개정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인권운동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iyoun@kwangju.co.kr

470km 달려온 춘천 만학도 선배의 응원

고흥 영주고 졸업식 참석...졸업생 어르신들과 이야기 꽃

"고흥 영주고 신입생 학우님들, 아니 형제 자매님들. 한 분도 나오하지 마시고 서로 감싸 안으며 동행 하세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잖아요. 3년 후 졸업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 한번 주세요. 시간 내서 축하의 자리에 달려갈까 합니다."

2016년 12월 고흥 영주고 교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자동차로 5시간, 470km나 떨어진 강원도 춘천에서 온 편지였다.

'1956년생 김중범'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두 장의 편지에 배움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열정과 고단한 삶의 궤적을 소개한 뒤 고흥 만학도 어르신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7일, 편지의 주인공인 김중범씨가 양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흥을 찾았다. 약속대로 영주고 만학도들의 뜻깊은 졸업식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3년 후 졸업 날짜 정해지면 연락 달라"던 당부 글을 잊지 않고 학교 측이 최근 졸업식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한 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고흥의 만학도와 강원도 만학도는 배움의 길에 접어든 후 일상에 찾아온 감격적인 순간순간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어린 시절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너무나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적셨다. 앞으로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는 약속도 빠트리진 않았다. 이날 감동의 현장을 지켜본 학교 관계자

는 "강원도와 전남의 거리는 이들의 우정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다"며 "그저 배움을 위한 열정 하나로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아 감동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형길 한국지식개발연구원장, 14일 광주대 총동창회장 취임

송형길(주)한국지식개발연구원장이오는 14일 오후 6시30분 광주대 호심관 3층에서 열리는 광주대총동창회 회장 취임식에서 제15대 신임회장에 취임한다.

이날 총회에는 정용득 법인이사장과 김혁중 총장, 4개대 동창회장장과 광주대 역대 동창회장을 비롯 자랑스러운광주대인상 수상자와 동문 150여명이 참석한다.

(주)키니스 대표이기도 한 송형길 신임회장은 지난 2014년 평생교육학과 석사, 2017년 한국언어교육학과 석사, 2018년 교

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평생교육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형길 신임회장은 "조직활성화와 시군구별 동문회를 육성해 동창들의 친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을 맡겨주시는 동문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

'축구 황제' 펠레, 건강악화에 두문불출

'축구 황제' 펠레(80·브라질)가 건강 악화로 혼자 걷기 어려워지면서 외부 출입 없이 집 안에 머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펠레의 아들 에디뉴는 11일(한국시간) 브라질 글로부 TV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상당히 연약해졌다.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난 이후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에디뉴는 이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생겼다.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며 "집 밖으로 나가시기를 꺼린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해야 에 두문불출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펠레는 2012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 재수술을 받으면서 휠체어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신장 결석 치료 등으로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양호술(조선대학교 대외협력부처장)·이연씨씨 장남 우순근, 김기승·김현씨씨 차녀 나영양=16일(일) 오후 2시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종친회

▲사)전주씨매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의=11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씨매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용)=18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동문회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총동문회 정기총회=14일(금) 17시30분 영광CC골프텔 3층세미나실 010-3634-4577.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

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기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

부음

▲김유상씨 별세, 상훈(광남일보 편집국장)·미화·은희(신창중교사)·경미(대학교수)·동교(용인성산초교)씨 부친상, 이순현·황인용(승덕고교사)·이상욱(머큐리증권 대표)·박성호씨 장인상=발인 12일(수) 오전 7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010-8600-0069. ▲유길안씨 별세, 재록씨 부친상, 유만근(광주시 대변인실 보도지원계장)씨 장인상=발인 12일(수) 전남 영암군 영암장례식장 101호 061-471-4884. ▲노대욱씨 별세, 정치훈(MBN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조모상=발인 13일(목) 오전 10시 전북 동산산원장례식장 4층 7호실 063-441-4470.